

2014년 산업 전망

김종기(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2013년 동향

- ◎ IT제조업 호조로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3% 증가세로 전환
 - 10대 산업 수출은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이 부진했으나,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 중국 에너지보조금 정책 종료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진에도 IT산업이 9.5% 증가 반면, 비IT산업군은 철강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년 수준에서 정체
 - 자동차는 수출단가 상승 및 부품수출 증가로 3.6% 증가, 조선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수주량 영향으로 1% 감소, 기계는 선진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2% 감소
 - 석유화학과 섬유는 중국, 개도국 수요 확대로 각각 5.3%, 2.7% 증가했지만, 철강은 수요부진 속에서 단가하락 및 공급과잉 영향으로 11% 감소
 - IT산업은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및 가전이 스마트폰, TV 수요 확대로 14~15% 증가 반면, 디스플레이가 대형 패널시장 축소 및 가격하락으로 7.8% 감소 추정

- ◎ 생산은 비IT제조업군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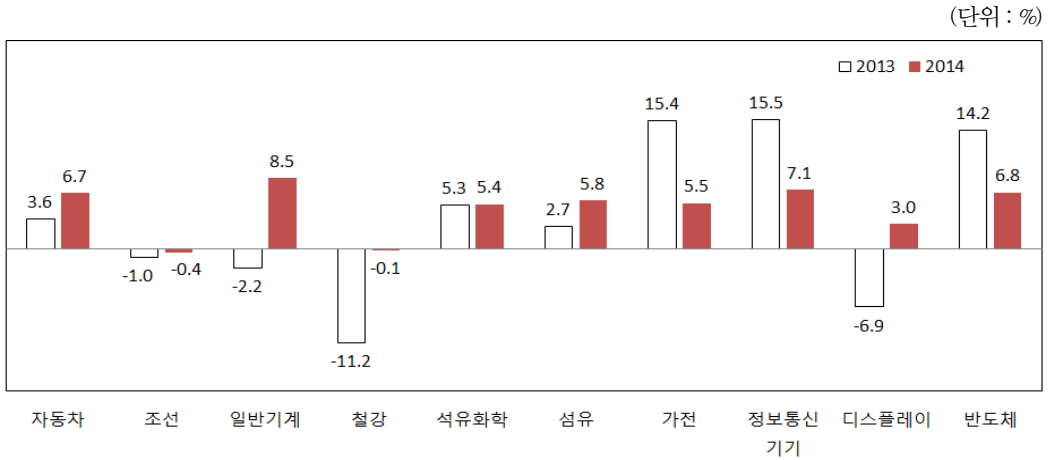
- 생산은 IT제조업이 7% 정도 증가했으나, 석유화학을 제외한 기계 및 소재산업군의 부진으로 전년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정
 - IT제조업군과 석유화학 생산이 수출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가 스마트 기기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호조로 13% 정도 증가
 - 그러나 일반기계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7% 감소, 철강은 수요산업 생산부진 및 전력난에 따른 가동률 조정으로 약 4% 감소 추정
 - 섬유는 내수 부진 및 재고 조정으로 3.4% 감소, 조선은 건조량 축소로 1.1% 감소, 자동차는 노동시간 축소로 약 1% 감소하며 부진
- ◎ 10대 주력산업 내수는 실물경기 둔화, 수요 위축으로 둔화세 지속
- 내수는 전년대비 회복하였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외의 업종이 경기 회복세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하며 성장세가 둔화
 - 정보통신기기는 시장 포화, 단말보조금 규제 등으로 소폭 증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스마트기기시장 확대 등으로 7~10% 증가
 - 석유화학은 소비재 등 전방산업 수요로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철강은 건설경기과 조선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5% 감소
 - 일반기계도 건설수주 위축 등으로 3% 감소, 조선은 해운시황 침체로 1% 감소, 가전, 자동차, 섬유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1% 정도 감소
- ◎ 기계 및 IT분야 수입 증가로 10대 주력산업 수입은 4% 증가
- 디스플레이와 철강이 감소했지만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여타 업종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2년 수입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 일반기계가 기존제품 부품교체 수요로, 섬유는 중저가품 역수입 확대로, 반도체는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로 약 10% 증가, 조선과 자동차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고효율차량 수요 확대로 4~6% 증가
 - 디스플레이는 범용패널 수요 약화, 대중국 수입수요 감퇴로 13% 감소, 철강은 내수부진과 국내 철강 공급능력 확대로 7% 감소, 가전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1.1% 소폭 증가

2 2014년 전망

□ 10대 주력산업 수출 : 세계수요 회복에 힘입어 5.1% 증가

- ◎ 미국, EU와 개도권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조선, 철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
 - IT제조업군이 6% 정도 성장하며 금년에 이어 수출을 이끌고 일반기계, 자동차 등 비IT산업군이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
- ◎ 기계산업군 수출은 금년에 비해 크게 개선 : 조선이 부진하나, 세계수요 확대 등으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5.4% 증가
 - 일반기계는 금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내년 선진권 경기회복과 중국 및 아세안 수요 호조 기대로 8.5% 증가 전망
 - 자동차도 미국과 EU, 중국의 성장세 전망 속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SUV 수요 증가, 해외생산을 위한 부품수요 확대로 6.7% 증가 예상
 - 조선 수출은 상반기 10% 이상 증가하나, 하반기 유럽위기 이후 선박발주 부진의 영향으로 11% 이상 감소하며 연간으로 0.4% 감소
- ◎ 소재산업군의 수출은 금년보다 소폭 개선 : 신흥지역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석유화학과 섬유가 증가하나, 철강 수출이 부진하면서 3.6% 증가에 머물 전망
 - 철강은 제품단가 약세, 중국 철강수요 둔화 및 신흥국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0.1% 감소하며,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금년대비 신흥국 수요 회복, 기저효과로 금년보다는 개선될 전망
 - 석유화학은 수출단가 하락이 변수이나 폴리올레핀 품목의 수요 지속과 중국, 아세안 및 EU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5.4% 증가 예상
 - 섬유는 선진권 수요 확대, 대중국 수출 회복, FTA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화섬직물, 편직물 등을 중심으로 5.8% 증가

[그림 1] 2014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 ◎ IT제조업군 수출은 증가하나 기저효과로 금년보다 증가율은 둔화: 월드컵 특수, 스마트기기 및 LTE시장 성장 속, 주력 IT품목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5.9% 증가
- 가전은 월드컵·동계올림픽 특수, 스마트TV, 프리미엄 생활가전 수요 확대, 해외현지 공장으로서의 부품수출 증가로 5.5%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선진국 LTE 전국서비스, 중국 LTE서비스 시작, 신흥시장 스마트기기 수요 확대, 해외 부품수출 확대 등으로 7.1% 증가
- 반도체는 신흥국의 스마트폰, SSD, 데이터센터부문 성장으로 6.8% 증가,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패널수요 확대, 수급불균형 완화로 3% 증가

〈표 1〉 2014년 10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및 특징

	업종	증가율		주요 수출 증감 요인(전망)	2013년 대비 수출 특징
		2013	2014		
수출 호조 (5% 이상)	일반기계	-2.2	8.5	·미국, EU 등 경기회복 및 수요 증가 ·아세안 기계류 수요산업 성장	큰폭 개선 (기저효과)
	자동차	3.6	6.7	·수출비중 높은 SUV 수요 증가 ·해외생산처의 부품수요 확대	개선
	정보통신 기기	15.5	7.1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 증가 ·해외생산처의 부품수요 확대	호조 지속 (기저효과)
	반도체	14.2	6.8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가전	15.4	5.5	·월드컵, 프리미엄가전 수요 확대 ·해외생산처의 부품수요 증가	
	섬유	2.7	5.8	·선진권 수요 확대, 대중국 수출 회복 ·FTA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	소폭 개선
	석유화학	5.3	5.4	·중국, 아세안, EU 시장 수요 증가 ·수출단가 하락 여부는 변수	현상 유지
수출 개선 (1~5% 미만)	디스플레이	-6.9	3.0	·스마트기기, UHD TV 수요 증가 ·상반기까지 패널가격 약세 전망	소폭 개선 (기저효과)
수출 부진	철강	-11.2	-0.1	·중국수요 둔화 지속, 단가 하락 ·신흥국 설비증설 및 공급과잉 ·금년대비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개선	개선 (기저효과)
	조선	-1.0	-0.4	·재정위기 직후의 선박 수주 축소 ·실적개선은 '14년 이후 예상	부진 지속

□ 10대 주력산업 생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 증가

- ◎ 생산은 자동차, IT산업 일부 업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이 있고, 조선이 부진하나 전반적인 수출 확대로 증가세 시현 전망
- ◎ 기계산업군은 기계와 조선이 대조적 명암: 일반기계와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지만 조선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일반기계는 해외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9.5%의 높은 증가, 자동차는 수출 증가와 생산여건 개선 및 기저효과로 2.7% 증가
 - 그러나 조선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수주량 감소에 따른 건조량 축소의 영향이 지속

되면서 10%의 큰 폭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은 크게 호전 : 설비능력 확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3%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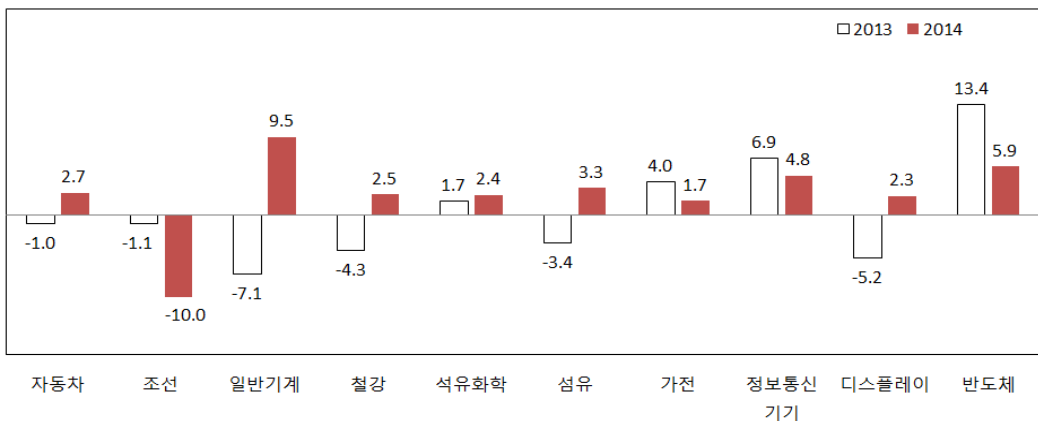
- 철강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 생산 회복에 따른 내수증가와 금년 하반기 완료된 설비증설의 영향 등으로 2.5% 증가
- 석유화학은 수출확대로 2.4% 증가, 섬유는 수출 및 내수회복, 탄소섬유 생산 본격화, 화섬원료 등 원자재가 안정화로 3.3% 증가

◎ IT제조업군은 소폭 둔화 :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4%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낮은 성장) 가전은 내수회복세와 월드컵 특수에 따른 DIV 수출호조 등으로 1.7% 증가, 디스플레이는 완만한 수출회복, UHD패널 수요로 2.3% 증가 등 두 산업 모두 TV수요의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
- (높은 성장) 정보통신기기는 수요가 확대되는 스마트폰과 부품을 중심으로 4.8%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생산의 중국 이전 요인이 있으나 초미세공정 도입, AP의 신기술 양산투자로 5.9% 증가

[그림 2] 2014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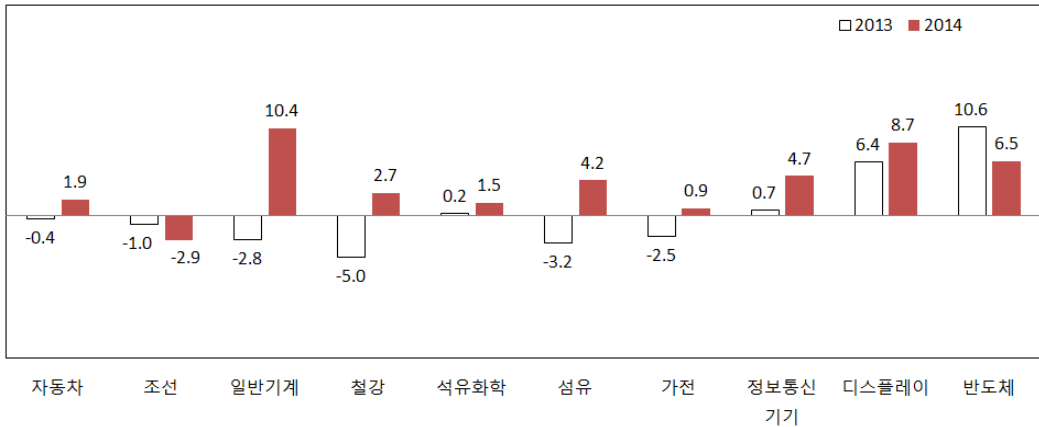


□ 10대 주력산업 내수 : 일반기계 호조 속, 조선 외에 모든 업종 증가

- ◎ 소비 회복세, 설비투자 확대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조선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별로 1~8% 증가하고 일반기계는 10% 큰 폭으로 확대
- ◎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 내수가 호조이나 조선은 부진할 전망
 - 일반기계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설비투자 확대의 영향과 기저효과로 10.4% 증가, 자동차는 신차 출시효과로 1.9% 증가세 반전
 - 조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발주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으로 2.9% 감소 전망
- ◎ 소재산업군은 전방산업 수요 증가, 민간소비 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1~4%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섬유는 민간소비 회복으로 소재산업 중 가장 높은 4.2% 증가, 철강과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각각 2.7%, 1.8% 증가 예상
- ◎ IT제조업군 내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호조 지속과 정보통신기기 및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면서 5% 정도 증가 전망
 - 가전은 월드컵 특수, 고효율 가전기기 수요 확대로 증가세로 전환되나, 시장포화와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0.9% 소폭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광대역 LTE 전국서비스, 신규 스마트폰 출시 확대, 단말보조금제 안정화 및 알뜰폰 수요 확대로 4.7% 증가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스마트 모바일기기, UHD TV,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6~8% 정도 증가 예상

[그림 3] 2014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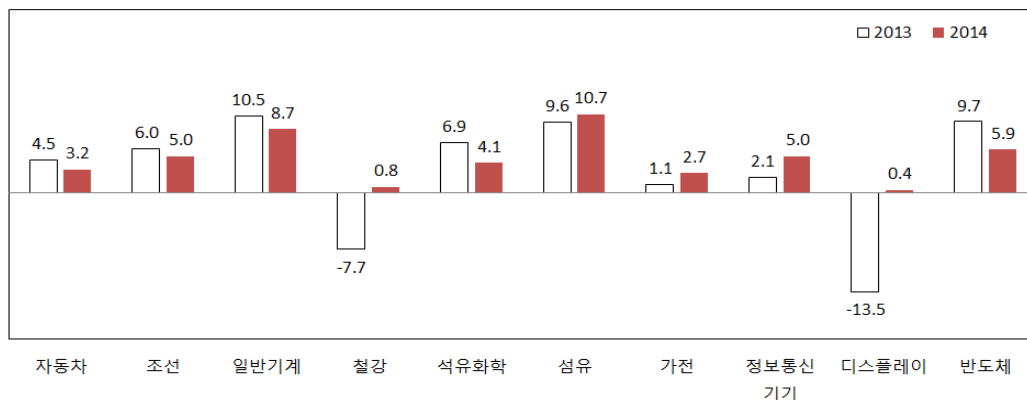
□ 10대 주력산업 수입 : 내수와 수출 회복으로 5.3% 증가 전망

- ◎ 주력산업의 수입은 수출확대 및 내수회복으로 완제품, 부품소재 수입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기계산업군 수입 증가율이 높을 전망
- ◎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수요 확대, 원화절상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7.1%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는 2013년에 유보된 기계류 설비투자 실현, 대선진국 수출제품용 중간재 수입 및 환율 요인에 의한 단가 하락으로 8.7% 증가
 - 조선은 해양플랜트 및 고기능 선박용 기자재 수요 확대로 5%, 자동차는 국산화 진전으로 부품 수입은 둔화되나 고효율차 수요 확대로 3.2% 증가
- ◎ 중저가품 수입수요 지속으로 섬유가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재산업군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4% 증가세로 전환
 - 철강은 수요산업 회복에 의한 내수확대, 저가 일본 및 중국산 수입 압력으로 0.8%의 소폭 증가세로 전환, 석유화학도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4.1% 증가

- ◎ IT산업군은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외산 스마트기기와 시스템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수요 확대 등으로 5.1% 증가 예상
 - 가전은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및 저가 외산 제품 수입 증가로 2.7% 증가, 정보통신 기기는 신규 외산 스마트기기 출시 확대로 5% 증가
 - 반도체는 모바일·첨단의료장비·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수요로 5.9% 증가, 디스플레이는 중국 범용제품 수요축소 지속으로 0.4% 소폭 증가

[그림 4] 2014년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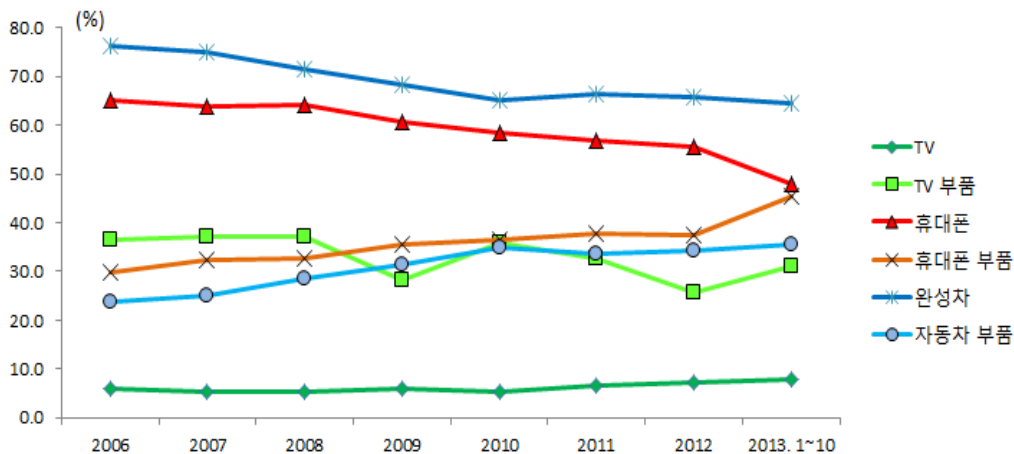


3 2014년 10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 내년 주력산업은 선진권, 특히 부진을 보이던 EU의 실물경기가 개선되고,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큰 폭은 아니나 2013년보다 높은 성장세 시현 전망
- ◎ 첫째, 산업군별로 보면 기계산업군 수출이 크게 개선(5.4%)되고, IT제조업군은 호조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둔화되어 5.9% 증가, 소재산업군 수출은 소폭 개선(3.6%)되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장
- ◎ 둘째,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수출과 생산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는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선진권 경기회복과 중국 및 아세안 시장의 수요 호조가 긍정적 요인
 - 반도체는 중국 등 신흥권 스마트기기시장 및 세계 빅데이터시장 확대 등으로 낸드 플래시, 모바일용 시스템반도체 수요 확대가 호조 요인
- ◎ 셋째, 정보통신기기, 가전 및 자동차도 2013년의 수출호조세를 이어가며 주력산업 전반의 수출확대에 기여
- 이들 산업은 해외생산 확대라는 공통적 수출제약 요인이 있으나 월드컵·동계올림픽 특수, SUV 및 스마트기기 수요 확대, 해외생산지의 부품수요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 넷째, 수출에서는 조선과 철강이 10대 주력산업 중에서 가장 부진할 전망
- 조선은 유럽 재정위기 직후의 선박발주 축소 영향으로 부진하고, 최근의 선가지수 상승, 발주량 확대의 실현 시기는 2014년 이후 예상
 - 철강은 중국 철강수요 둔화 전망, 신흥국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확대, 철강제품단가 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며 부진 예상
- ◎ 다섯째, 일부 산업(휴대폰, 자동차, 가전)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의 배경에는 해외생산 거점의 가동률 확대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수출을 유발시키는 점도 작용

[그림 5] 휴대폰, TV, 자동차의 완제품 및 부품 수출비중 추이



- 주: 1) 무선통신기기 수출에서 휴대폰 및 휴대폰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2) 가전 수출에서 TV 및 TV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3) 자동차 수출에서 완성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 ◎ 한편 내년 주력산업의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요인들은 신흥국 경기회복 정도, 원화 강세 지속 여부, 엔화 약세의 장기화,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
 - 원화 강세 지속과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중소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 악화로 작용하며 수출 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상존
- ◎ 하반기 산업 전망 기상도의 특징
 - 세계경기 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는 산업: 일반기계, 반도체
 - 부진에서 벗어나 대중국 수요 회복 기대, 공급불균형 완화 등으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산업: 디스플레이
 - 국내입지 경쟁력 약화, 세계 수요변화 대응으로 해외생산이 확대되는 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가전, 섬유
 - 글로벌 공급과잉, 단가하락, 주요 수출처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철강
 - 유럽 재정위기 직후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 조선

〈표 2〉 2014년 산업 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 주: 1) 전망: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